

분류	구역공과-2017년 21과
제목	전도자의 절대사명 ③- 절대
성경	로마서 16:25-27
일시/장소	2017년 5월 21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로마서 16:25-27)

-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1. 절대적 문제, 절대적 응답 → 나의 말씀 각인(사6:13)

- ▶ 절대적인 것을 찾는다는 말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찾아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 1) 인간에게 없는 절대성- 죄, 저주, 재앙, 사탄, 지옥배경을 해결할 수 없다.
  - 2)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 3가지- 구원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3) 절대적인 이정표- 행19:21, 행23:11, 행27:24, 행28:30-31, 롬16:1-27

2.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 1) 하나님의 절대목표(창3:15)- 복음 회복
  - (1)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 멸망과 그리스도
  - (2) 불신자도 아는 하나님의 목표- 재앙과 복음 회복
  - (3)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 종말과 복음 증거
- 2) 전도자의 절대 사명 (행1:3)- 복음 누림
  - (1) 복음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각인시켜라.
  - (2) 영적 DNA를 갖추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누려라.
  - (3) 하나님이 주시는 참 성공으로 세상을 살려라.
- 3) 전도자와 교회의 절대헌신(행2:1)- 복음 전달(증거)
  - (1) 결론을 알고 시작- 행1:1, 3, 8, 14
  - (2) 결과를 알고 정복- 행1:8, 마24:14, 행2:1-4, 행2:9-11, 행2:41, 행2:43-45.
  - (3)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화의 과정임을 알라.
  - (4) 우리 교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알고 헌신하라.
  - (5)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보좌에 앉는 것이다.

▶ 남길 업적- 롬16:19(나), 롬16:20(현장), 롬16:25-27(미래를 바꾸라)

3. 하나님의 절대대를 찾은 증인들

- 1) 창45:5, 요셉
- 2) 출4:24, 모세
- 3) 삼상3:19, 사무엘
- 4) 삼상16:13, 다윗
- 5) 왕하2:9-11, 엘리사
- 6) 사6:13, 이사야
- 7) 딤후2:1-7, 디모데

♣ 결론-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 좋은 곳, 가장 사실적인 곳에서 시작하라.

요셉(노예), 모세(양자), 사무엘(출가), 다윗(목동), 엘리야와 엘리사(지명수배), 이사야(죽음의 위기), 초대교회와 바울(이단 누명 썼을 때)

(The end)

♣ 서론

▶ 롬16:25-27은 잘 아는 본문이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된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고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되게 설쳐도 응답 받는 사람도 있다. 하도 설치고 아니면 막 게으른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절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걸 본 사람은 설쳐도 성공한다. 설치면 빨리 성공한다.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은 게을러도 성공한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 것이다.

▶ 절대- 자,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도대체 절대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냐?

1) 하나님이 주신 것-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절대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있는데 그건 평생 고생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 안 믿어서 성공한 사람 많은데?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것이다.

아니, 실패하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 많은데요? 숨은 영적 문제 있다.

▶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게 절대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다.

(1) 그래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를 찾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3)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다.

▶ 이게 우리 원단 메시지다.

2) 일, 사람, 전도(선교) (행8:26-40)

▶ 자, 이러다보면 두 번째 것이 따라온다.

(1) 일-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일을 만나게 된다.

(2) 사람- 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초대교회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다.

(3) 전도, 선교- 그러면 실제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로 된다.

▶ 하나님이 절대로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굳이 가서 뭐 열심히 안 해도 교회 잘 온다. 여러분이 별로 안 가르쳐줬는데도 말씀을 잘 깨닫는다. 교회 수 십 년 다닌 사람들보다 복음 더 잘 깨닫는 사람들이 나온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에디오피아 내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준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1)번을 누리게 되면 나오게 된다.

3) 영원한 것

▶ 서론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은 없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롬16:25-27에 보면 영세 전에 감춰졌다가 세세 무궁토록 그랬다.

▶ 자, 여러분 사실상 이것만 해도 된다. 이것만 잘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또 빨리 실천 못해도 알기만 해도 축복이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걸 못 찾아가도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만 시작해도 축복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한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굴까, 질문을 안 한다. 이거 하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응답이 된다.

1. 절대적 문제- 절대적 응답

▶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부분 알려줘야 된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 거기에 절대적인 응답이 있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된다.

1) 12가지 문제

▶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적인 문제가 뭐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 12가지 문제다. 절대적인 문제다.

2) 그리스도

▶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답을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도 아니다. 참 된 왕, 참 된 선지자, 참 된 제사장이자. 이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버린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알려줘야 된다.

3) 이정표

▶ 이때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나오는 것이다. 이정표가 보

이게 된다.

## 2. 절대 응답 세가지

▶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응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다. 그게 뭐니까?

1) 절대 목표- 복음 회복

▶ 절대 목표다. 자, 하나님이 우릴 향한 절대 목표가 뭘까요?

2) 절대 사명- 복음 누리

▶ 그리고 절대 사명이 뭘까요?

3) 절대 헌신- 복음 전할

▶ 절대 헌신이 뭘까요? 복음 전할.

▶ 이렇게 딱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와야 되고 우리 램넛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아니, 생각해보시라.

우리가 말이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지 영 아닌 걸 만났다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과책 보면 잘 나와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요? 복음 회복이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뭘까요? 복음 누리는 것이다. 그게 뭐 말이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이다.

절대 헌신이 뭐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공과책 쳐다보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도 나오고 이런 걸 같이 얘기하면 된다.

## 3. 증인들- 램넛트 7명

▶ 자, 절대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다. 증인들을 또 살펴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램넛트들이다. 7명의 램넛트들 잘 아시지 않는가? 이 얘기해주면 된다. 이 램넛트들이 이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부터 먼저 절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볼 줄 알면 상대방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면 이 축복이 따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알면 길이 보인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증인들이다.

## ♣ 결론

▶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결론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다. 절대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를 찾는 걸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된다. 또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어디서 찾는가?

1) 당연

▶ 당연한 곳에서 찾는 것이다. 그렇죠? 당연한 걸 안 하는데 절대를 볼 수 없다.

▶ 저는 전도의 축복을 언제 받았냐면 전도사 때 주일 학교를 맡았다. 주일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당연한 것 아닌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한 걸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주위 초등학교를 다 찾아갔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가보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걸 알았다. 당연한 것 아닌가? 더 문제를 발견했다. 6학년들이다. 저래가지고 중학교 가야 된다. 반드시 문제 오겠죠?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6학년부터 만나야 되겠다.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회 6학년 아이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김광일 장로 아들이다. 내가 그때 갈 때 6학년으로 있는 것이다. 개를 활용한 것이다. 친구들 데려 오게 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어른들도 세월 많이 지나서 초등학교가 커서 지금은 부장 판사로 있다. 그러니까 6학년이 일어나니까 5학년 밑에 아이들이 따라온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뭘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한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2) 필연

▶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 필연이 보인다. 아, 뭐가 필요하구나, 아, 왜 안 되구나? 보인다.

▶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저절로 응답이 오는 게 절대다. 아,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생명 걸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찾아진다. 대부분 신자들은 모르고 있다. 여러분 가르쳐줘야 된다. 왜냐하면 설교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당장 여러분 신자들 만나서 얘기해봐라. 헛소리 한다니까요? 아니, 헛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 받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헛소리 하고 다니면 헛 응답 받는다. 그리고 그걸 강단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절대란 답을 알려주는 것이다. 왜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려줘야 된다.

▶ 내가 그랬다. 우리 램넛트를 보시라. 영어 잘한다. 한국말 잘한다. 복음 안다. 그래서 너는 통역해라. 이렇게 답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신랑 만났다. 지금 내 나이에 시집 못 간 사람도 많다. 신랑이 괜찮은 친구다. 내가 일부로 그 친구를 뽑아서 창원에 보냈다. 왜냐, 내가 볼 때는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절대란 답이 나오는 것이다.

▶ 우리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당연한 걸 놓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다. 당연한 걸 놓쳐버리면 필요한 게 안 보인다.

필요한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절대를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앉은 권사님들 옛날부터 보시라. 이 분들은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썩 다 국회의원이냐? 이러면 교회 안 된다. 기도가 일단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단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절대 절대적인 답을 가진 사람이냐를 발견해야 된다.

▶ 꼭 상담해서 알려줘야 된다.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알기는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때문에 한 두 명이 은혜 받아도 그건 큰 것이다. 여러분이 막 대부흥회를 해서 사람을 살리지 아니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와줘도 된다. 오늘도 이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응답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http://data.rutc.com> ②<http://www.jcking.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